

**소진공, ‘韓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장관 표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 제26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유공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발전 유공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소진공 황미애 상임이사(오른쪽)가 산업부 김태희 유통물류과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한화,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김장김치 나눔**

한화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선교본당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한화 임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김장 재료 준비, 버무림, 포장, 배달까지 전 과정에 힘을 보탰다. 임직원들은 총 1000kg의 김장김치를 종로구 무악동·교남동·천연동 일대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전달했다. /한화

**이랜드월드, 물류센터 화재 지역주민 건강회복 지원**

이랜드월드가 천안 물류센터 화재로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랜드월드는 지난 5일부터 주말 동안 주민 건강 지원 물품 4500세트를 순차적으로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물품 세트는 호흡기 보호와 면역력 강화를 위해 종합비타민, 고향향 비타민C, 레몬 생강청, 배도라지청 등으로 구성됐다. /이랜드

**케이뱅크, ‘금융권 합동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을 찾아 임직원 30여명이 ‘금융권 합동 사랑의 온기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연탄과 난방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물품 패키지 등을 홍제동 개미마을 취약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B인재양성’ 수료식 성료**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인재양성’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KB인재양성은 KB국민은행 대표사회공헌사업 ‘KB 드림 웨이브(Dream Wave) 2030’의 일환으로 꿈과 도전정신이 있는 미래인재를 선발해 전문가 멘토링 및 성장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 /KB국민은행

‘창립 80주년’ 기아,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전개

**‘기아 트레저 헌트’ 캠페인 진행
80년 역사 관련 각종 자산 수집
헤리티지 유산으로 보존 계획**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브랜드의 정체성과 성장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Kia Treasure Hunt):80년의 유산을 찾아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아의 80년 역사와 관련된 각종 자산을 수집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기아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유한 자산의 사진과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기아가 전 국민 참여형 캠페인 ‘기아 트레저 헌트(Kia Treasure Hunt)’를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초기형 모델·콘셉트카 등 차량 및 부품 ▲오래된 책자·기사·메모 등 문서 및 기록 자료 ▲역대 엠블럼과

로고·스케치·설계 도면 등 디자인 및 브랜드 자료를 포함해 역사성과 희소성을 가진 모든 자산이 대상이다.

철강협회, ‘철강사진 공모전’ 시상식

최우수상 포함 22점 수상작 발표

한국철강협회 철강홍보위원회는 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2025 철강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22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1999년 시작돼 2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한 SNS 참여형 방식으로 접수를 전환했다. ‘철의 가치, 철과 같이’를 주제로 일상 속 철강의 가치를 재조명했으며, 지난 8월 29일부터 약 2개월간 총 1437점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심사는 업체수·윤현기 사진작가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술성과 주제 적합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사 결과, 최우수상은 송민서 씨의 ‘구조 훈련’이 선정됐다.

수상작 ‘구조 훈련’은 여러 개의 철제 비너(로프를 걸거나 연결하는 금속 고리)와 로프가 구조 현장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하는 모습을 포



최우수상 ‘구조 훈련’(송민서),/한국철강협회

착했다. 작은 철제 고리 하나하나에 시선을 집중시키며 구조 훈련에 나선 대원들의 표정과 함께 철이 우리의 안전과 일상에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에서 쓰이는 철이야말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며 “철강 구조물과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나누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철과 인간이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지탱하는 따뜻한 상생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대웅제약, 산불피해 이재민 구호품 전달

총 5000세트 지원

대웅제약은 경북 산불 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들을 위해 경북도청에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긴급 구호 물품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도청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이재민에게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등 5개 시군에 걸쳐 진행됐다.

대웅제약은 의약품 약 5000개, 공산품 1만여 개, 건강기능식품 약 5000개 등 총 5000세트의 구호 물품을 각 지역 임시 조립주택 거주자에게 전달했다. 수혜 대상은 약 4200명

으로, 이들 대부분은 산불 발생 이후 6개월이 넘도록 본래 거주지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기부는 사회적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상생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3월에도 경북약사회와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3000여 개의 의약품 및 의약품품을 기부한 바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대표는 “장기화되는 피해 복구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분들의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조직문화 우수 인증

가족친화 기업 등 7건 수상·인증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한층 더 거듭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가족친화 경영’, ‘조직문화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오면서, 올해 정부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총 7건의 조직문화 우수기업 관련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달 노사 발전재단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달에는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을 연장받았다. 이번 인증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육아·돌봄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도 고도화 등 시스템을 보완하며

기아 내부 평가위원단의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은 기증 또는 대여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기아의 소중한 헤리티지 유산으로 보존할 계획이다. 보존 대상 선정 자산을 등록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전문가나 소장가만이 아닌 기아와 인연이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과 브랜드 스토리를 써 내려가는 과정”이라며 “한국 산업사의 의미 있는 장을 함께 완성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아는 지난 5일 경기 용인에 있는 ‘기아 비전스퀘어’에서 창립 8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에피스, 조직문화 우수 인증

운영 성과를 높여 온 결과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고용노동부 주관 ▲근로자의날 유공 포상(5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5월),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7월),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9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여가친화경영 기업 인증(11월)에 이어, 이번에 두 건의 추가 인증을 더하며 올해 총 7건의 조직문화 우수기업 관련 수상 및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피플팀장 강대성 상무는 “당사가 달성한 수상 및 인증은 임직원의 업무 성과 및 조직 몰입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삼양 1963’ 출시 한 달 700만개 판매

프리미엄 국물라면 시장 변화 예고

삼양식품이 출시한 신제품 ‘삼양 1963’ (사진)이 국내 프리미엄 국물라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했다.

8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삼양 1963’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돌파했다. 이는 기존 삼양라면(오리지날)의 2025년 월평균 판매량의 80%를 넘는 수치다.

‘삼양1963’의 소비자 가격이 기존 삼양라면에 비해 약 1.5배 비싼 프리미엄 라면임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판매 성과다. 높은 소비자 선호도를 보여준 결과이자 브랜드 경쟁력을 확인

한 성과로 해석된다.

‘삼양1963’은 과거 삼양라면 제조의 핵심이었던 ‘우지’ 유탕처리 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동물성 기름 우지와 식물성 기름 팜유를 황금 비율로 혼합한 골든블렌드 오일을 사용해 면을 튀겨냈다. 이를 통해 면의 고소함과 감칠맛을 강화했고 액상스프와 후첨 & 분말후레이크를 적용해 원재료의 풍미를 더욱 살렸다.

/신원선기자 tree6834@

인사

◆HL그룹 <승진> ◇사장△HL만도 박영문 사장(중국 지역 대표) △HL클레무브 이윤행 사장(CEO) ◇부사장△HL만도 정재영 수석부사장 △HL홀딩스 지주부문 강한신 부사장 △HL만도 김문성 부사장 △김재혁 부사장 △김현욱 부사장 △이정석 부사장 △이철 부사장 △홍영일 부사장 △HL디앤아이한라 이용주 부사장

부음

▲한만청(전 서울대병원장)씨 별세, 김봉애씨 남편상, 한숙현·한금현·한지현씨 부친상, 조규완(이화산업(주) 회장)·백상익(풍원산업(주) 대표)·장재훈(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씨 장인상 = 8일, 서울대병원장제식장 1호실(8일 오후 5시 이후 조문 가능), 발인 10일 오전 7시 02-2072-2091